

2018. 11. 27

롯데관광개발 탐방노트

●
Mid-small cap
 Analyst 윤주호
 02. 6098-6666
 juho.yoon@meritz.co.kr

■ 기본사항

- > '71년 5월 설립, '06년 코스피 상장, 여행업, 항공사 전세운항, 부동산개발, 카지노 사업 영위
- > 3Q18 누적 매출비중은 여행 84.8%, 분양대행 10.5%, 카지노 2%, 기타 2.7% 임
- > 주요 주주로는 김기병 외 4인 58.3% (동화투자개발 24% 포함), KB자산운용 5.1%, 자산관리공사 4% 등임

■ 기존 사업: 여행사업

- > 여행 사업부는 4개 지사, 70개 대리점, 1,000여개의 여행사와 협력
- > 3Q18 누적 여행사업부 영업이익은 57억원(영업이익률 10.8%), 크루즈 및 신규사업 준비 중

■ 신규사업: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개발 ('19년 10월 완공 예정)

- >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보유한 복합리조트 건설을 계획 중, 제주시 노형동 중심가에 위치, 제주공항(3km)와 제주국제크루즈 터미널(7km) 인근으로 접근성 용이
- > 지상 38층, 지하 6층로 연면적 303,737㎡로 서울 63빌딩 1.8배 규모. 건물 높이 169m로 제주도 내 최고층 건물이 될 예정. 건물 높이 관련 2008년 공청회 및 의회 통과 완료
- > 중국 녹지그룹(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) 와 공동 시행, 중국 건축(세계 최대 건설사) 책임 준공으로 진행 예정. 완공 이후 롯데관광개발은 호텔, 카지노, 리테일 시설을 소유, 운영하고 녹지그룹은 호텔레지던스를 분양한 이후 사업에서 exit 예정
- >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는 슬롯머신 313대, 게임테이블 171개로 국내 경쟁사 G사와 비슷한 규모 전망,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 인수('18.8월)후 LT카지노로 변경하여 운영 중
- > 호텔 브랜드는 그랜드 하얏트(GRAND HYATT)로 올 스위트 1,600객실로 구성
- > 해당 프로젝트 자금확보 목적으로 최근 2,158억원 유상증자, 추가 자금조달 예정
- > 제주도 내 카지노 경쟁사 부진: 중문단지에 위치한 '제주 신화월드'도 '18년 오픈. 3~6월 월평균 800~900억원 수준 보이다가 오너가 구속되면서 agent가 영업을 포기한 상황

■ 제주시는 중국인 관광객의 최대 여행지

- > 중국인 관광객이 노비자(No-Visa)로 방문 가능한 관광지, 중국 동북부에서 가까우며 크루즈 여행 활성화
- > 중국 주요도시는 제주와 직항 노선 운영, '25년 제주 제2국제공항 개설로 향후 관광객 증가 예상
- > '18년 9월 월간 기준 외국인 방문객은 122,998명으로 '17년 9월(65,557명) 대비 YoY +87.6%로 회복 중, 연간 누적 입국자는 '17년대비 '18년 YoY 17.6% 감소. 제주도 방문 외국인수는 회복 기초를 보이고 있음.

■ 재무구조 및 비용

- > 용산 개발사업 중단으로 2Q18에 1,000억원에 이르는 손실 처리. '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' 전액 상각처리 완료.
- >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총 공사비 9,000억원 수준으로 예상. '18.10월 기준 분양률은 86%로 공사비 조달에 필요한 자금의 80%이상 달성

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1월 2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중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8년 11월 2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1월 2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윤주호)

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나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